

'14년 1차 경찰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3회)

- 일반공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한 국 사】

응시번호 :

이름 :

1. 다음은 유적·유물을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반달돌칼을 통해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인 형태의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② 반구대 바위그림을 보고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을 비는 염원이 표현되었음을 알았다.
- ③ 고인돌을 보고 고인들의 크기가 당시 지배층의 정치권력과 비례함을 알았다.
- ④ 창원의 다호리에서 발견된 붓을 보고 철기 시대에 한자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았다.

2. 다음 백제의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서기」 편찬 ㉡ 웅진 천도
- ㉢ 율령 반포 ㉣ 22담로 설치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3. 다음은 신라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사실들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가) 박, 석, 김의 세 부족이 연맹하여 이사금을 선출하였다.
- (나) 내물왕 이후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였다.
- (다)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아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 (라) 진골 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 150년간 무려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 ① (가) - 신라는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 ② (나) - 대군장이라는 뜻의 '거서간' 이 왕호로 사용되었다.
- ③ (다) - 다른 시기에 비해 국왕권이 강력한 시기였다.
- ④ (라) - 지방에서 '성주' 혹은 '장군' 이라고 칭하는 호족이 등장하였다.

4. 통일 신라 당시 (가) ~ (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산동반도 (나) 서원경
- (다) 울산 (라) 청해진

- ① (가) - 신라원에서 불공을 드리는 신라인
- ② (나) - 민정 문서를 작성하는 촌주
- ③ (다) - 서역의 물건을 가져온 이슬람 상인
- ④ (라) - 동시전에서 시장을 감독하는 관리

5. 다음 문화유산에 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탑이다.
 - ㉡ 7세기 백제 무왕 때 전라도 익산에 건립하였다.
 - ㉢ 원래는 9층 석탑이었으나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다.
 - ㉣ 목탑 양식의 석탑으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준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6. 밑줄 그은 '그'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그가 건국하고 즉위한 지 삼사일 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아 들어 만나보고 개탄하면서 말하기를, “근년에 백성들을 혹독하게 수탈하여 토지 1경의 조(租)를 6석까지 받아 냈으므로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아주 가련하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1/10을 받는 제도를 써서 한 부(負)에 조 3승(升)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민간에서 거두어들이는 3년간의 조를 면제하여 주었다.
- 그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발해의 유민들을 동족으로 간주하여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특히 발해 세자 대광현에게는 왕계라는 성명을 주고 선조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왕실 족보에 넣어 주기까지 하였다.

< 보 기 >

- ㉠ 서경에 분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 ㉡ 의창, 상평창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 ㉢ 거란의 1차 침입을 격퇴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 취민유도(取民有度)를 내세워 농민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하였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7. 밑줄 그은 ㉠ ~ ㉣과 관련한 운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부인 운우는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긴 후 지주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 가족들과 함께 인근의 ㉠ 황무지를 개간하고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 민전을 갖게 되었다. 운우는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고, 호미로 김을 매었으며 퇴비를 만들어 논밭에 뿌렸다. ㉢ 이러한 농업 기술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농법으로서 ㉣ 경작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 ① ㉠ -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받았다.
- ② ㉡ -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납부하였다.
- ③ ㉢ - 「농사직설」을 통해 익혔다.
- ④ ㉣ - 밭에서 2년 3작의 윤작을 하였다.

8. 밑줄 그은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 이력 >

| | |
|-------|---------------------------|
| 목종 8년 | 과거에 장원 급제함. |
| 현종 4년 | 국사수찬관으로 ㉠ 「칠대실록」 편찬에 참여함. |
| 정종 1년 | ㉡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함. |
| 문종 1년 | ㉢ 문하시중이 되어 형법의 기틀을 마련함. |
| 문종 9년 | 퇴직 후 ㉣ 9재 학당을 설립함. |

- ① ㉠ - 고려 왕조 실록으로는 유일하게 현재 전해지고 있다.
- ② ㉡ - 급제자와 함께 좌주-문생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 ③ ㉢ - 중서문하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④ ㉣ - 9경(經)과 3사(史)를 가르쳤다.

9. (가), (나)로 인해 발생한 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날 밤 꿈에 칠장복을 입은 신(神)이 나타나 말하길, “나는 초나라 회왕 손심인데, 서초 패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빠졌다.”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생각하기를,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나는 동이 사람이다. 또한 서로 떨어진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 아니라 세대가 천 년이 넘는데, 내 꿈에 나타나 감응하니 이는 무슨 징조일까.’ 하고, 드디어 글을 지어 조문하였다.
 (나) 남곤은 나뭇잎에 묻은 감즙을 갈아먹는 벌레를 잡아 나뭇잎에다 ‘주초위왕(走肖爲王)’ 네 글자를 써서 갈아먹게 하였다. ... 그는 왕에게 이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바치게 하여 문사(文士)들을 제거하려는 화(禍)를 꾸몄다.

- ① (가) - 사초에 기록된 내용이 빌미가 되었다.
- ② (가) -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나) - 반정 공신들의 위훈 삭제 문제로 일어났다.
- ④ (나) - 현량과를 통해 발탁된 신진 인사들이 희생되었다.

10. 다음은 조선시대 일본과 관련된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다. 시대순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 | |
|--------|--------|
| ㉠ 삼포왜란 | ㉡ 을묘왜변 |
| ㉢ 기유약조 | ㉣ 계해약조 |

-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초기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집권층은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서역과 중국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고 국가적인 지원 속에 여러 방면의 실용적인 학문을 크게 발전시켰다.

- ① 천체의 운동을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하였다.
- ②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 ③ 식자판 조립 방법을 개발하고 갑인자를 주조하였다.
- ④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12.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좌의정 채제공이 왕께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인들은 자유롭게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생활이 궁색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 ① 상인인 갑(甲)은 중강에서 열리는 후시를 이용하여 청에 인삼을 판매하였다.
- ② 소작농인 을(乙)은 매년 정해진 액수의 소작료를 납부하였다.
- ③ 경기도의 농민은 병(丙)은 생산량의 1/10을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납부하였다.
- ④ 수공업자인 정(丁)은 장인세만 납부하면 자유로이 물건을 만들 수 있었다.

13. (가), (나)에 담긴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을 책이니, 크게 신이(神異)한 일로써 후세에 보여 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동명왕의 사적을 매우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신이하여 사람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로 나라를 창시하신 신의 자취인 것이다. ... 이러한 까닭에 시를 지어 기록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근본이 성인의 나라임을 알게 하려 할 뿐이다.
 (나) 물론 단군께서 먼저 나시기는 하였으나 문헌으로 상고할 수 없다. 삼가 생각하건대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시어 그 백성을 후하게 양육하고 힘써 가르쳐 주시어 머리를 틀어 엮는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문화가 융성하였던 제나라와 노나라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하여 백성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 은혜를 받아 예악의 습속이 왕성하게 계속되고 쇠퇴함이 없었으니, 우리 동방은 기자의 발자취에 대하여 집집마다 읽고 사람마다 익혀야 할 것이다.

- ① (가) - 우리나라를 소중화로 파악하고 있다.
- ② (가) -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이해하였다.
- ③ (나) - 세조의 반정으로 집권한 세력의 역사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④ (나) - 실증적 역사 서술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14.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로 오랑캐를 몰아내려면 중화의 유법을 모두 배워서 우리나라 풍속의 우둔함을 먼저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타인이 10가지를 하면 우리는 100가지를 하여 먼저 우리 백성을 이롭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어서 넉넉히 저들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격파할 수 있게 한 다음에야 중국에는 볼 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 열하일기 -

- ① 수레와 선박 이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② 노론 가문 출신으로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왔다.
- ③ 박규수, 오경석 등의 통상 개화론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15.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의 요구사항으로 관계가 먼 것은?

-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할 것
- ②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를 엄징할 것
- ③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 ④ 무명잡세를 거두지 말고 기왕의 공사채를 무효화 할 것

16. 다음 글을 발표한 단체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제 대조선국이 독립국이 되어 세계 만방에 어깨를 겨누니 이는 우리 대군주 폐하의 위덕이 떨침이요, 우리 대조선국의 유사 이래의 광명이요, 우리 이천만 동포의 행복이다. ... 전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전 모화관을 새로 고쳐 독립관이라고 하여 옛날의 치욕을 씻고 후인의 표준을 만들고자 함이요, ... 이에 알리니 밝게 헤아려 보조금을 많은 적든 뜻에 따라 보내고 본회 회원에 가입할 뜻이 있으면 그를 나타내주기를 바란다.

- ①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중립화론이 제기되었다.
- ② 아관파천 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 ③ 청에서 파견한 뮐렌도르프가 내정을 간섭하였다.
- ④ 고종 퇴위를 반대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났다.

17. 일제 식민 통치기에 있었던 다음의 사실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김원봉이 만주 길림성에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 청년을 중심으로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 ㉡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념을 초월하는 신간회라는 통합 단체를 결성하였다.
- ㉢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연합작전을 펼쳐 영릉가·홍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 중심제로의 개헌을 통해 주석인 김구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8. 다음과 같이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행될 무렵의 사실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창씨를 안 한 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 창씨를 안 한 자는 공사 간 그들의 기관에 일체 채용하지 않는다. 또 현직자도 점차 해임 조치한다.
- 창씨를 안 한 어린이들은 일본인 교사들이 구타, 질책을 하는 등 그를 증오함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애소(哀訴)로써 부모들에게 창씨를 하게 한다.

- ①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 ② 지금부터 미국의 중수 계획을 세워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급무라고 믿는다.
- ③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9. 다음은 두 인물의 연설이다. (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가) 하루라도 빨리 자주 독립의 국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각 정당이 한 단체를 이루어 자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만든 것이 독립 축성 중앙 협의회이고 이미 여기서 결정된 결의문까지 냈습니다. 내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 나를 인민 공화국의 주석으로 선정하였다하나 나는 충청 정부의 사람입니다.
- (나) 27년간이나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 강산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나는 지난 5일 충청을 떠나 상하이로 와서 22일까지 머물다가 23일 상하이를 떠나 당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나와 각원 일동은 한갓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 ① (가)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 ② (가) - 국제 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를 청원하였다.
- ③ (나) - 김규식 등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④ (나)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 다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 ① 신군부 세력이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②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었다.
- ③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 ④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Western-style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is like a game of tennis. If I introduce a topic, a conversational ball, I expect you to hit it back. If you agree with me, I don't expect you simply to agree and do nothing more. I expect you to add something - a reason for agreeing, another example, or an elaboration to carry the idea further. But I don't expect you expect you always to agree. I am just as happy if you question me, or challenge me, or completely disagree with m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_____.

- ① you'll be playing the wrong game
- ② your response will return the ball to me
- ③ you'll learn a new lesson from your experience
- ④ your conversation style will differ from the Western style

15. 다음 글들을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A) In one study, biometeorologists suggested a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one density and temperature. Some Hungarian scientists found an increase in dental periostitis(gum inflammation) with the passage of a warm front.

(B) In Europe, where biometeorology began and has flourished, it's assumed that ordinary weather effects ordinary human beings in myriad ways.

(C) Meanwhile, researchers in Japan noticed an increase in asthma attacks when the wind changes direction.

- ① (B) - (C) - (A) ② (C) - (A) - (B)
- ③ (B) - (A) - (C) ④ (C) - (B) - (A)

16.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A mother's good intention does not always lead to expected results.

① A child, for example, wants to do something that his mother doesn't approve of. ② In this case, his mother says that he is wrong. ③ This, however, may cause the child to have a negative view of himself. ④ The child is expected to love this mother. He may feel that he will not to able to do anything right.

17. 다음 글의 요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All nations modify their history. Disasters are refined as victories. Bitter turns to sweet. The British turned the painful retreat from Dunkirk into a triumph of the spirit. The Japanese are much like other peoples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their past. Japans' ruthless invasion of China, for example, is described as "an advance into China". Most offensive incidents are also wholly ignored perhaps hoping that not discussing the unpleasant will somehow make it disappear.

- ① law of history ② lesson of history
- ③ value of history ④ distortion of history

18. 다음 글의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은?

I abandoned the medical profession with relief, but I do not regret the five years I spent at the hospital. They taught me pretty well all I know about human nature. for in a hospital you see it naked and raw. People in pain, people in fear of death, do not try to hide anything from their doctor, and if they do, he can generally guess what they are hiding.

- ① a hospital ② human nature
- ③ the medical profession ④ all I know

19. 다음 글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Abraham Lincoln, the sixteen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y have received a message about his own death in a dream. One night in 1865, he had a strange dream. He dreamed he was inside the White House. Many of the people were crying. "Who is dead?" he asked. "The president", someone answered. "He was killed by an assassin." A few days after this, on April 14th, Lincoln was shot and killed while he was watching a play at Ford's Theater in Washington, D.C.

- ① pessimistic ② mysterious
- ③ sarcastic ④ sorrowful

20.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It looks as if proverbs about women were all written by men, because they are usually so insensitive and unflattering. ① I know of only one really complimentary saying about women, and that is the simple statement: "All women are good." ② It is true that another proverb says "Woeful is the household that wants a women," but even so, "Women are necessary evils." ③ But there is one rather charming saying about women: "Early rain and a woman's tears are soon over." ④ I think it is because proverbs really belong to past ages, and were made by men in times when the superiority of males was undisputed. Not so long ago, some women were accused of being witches, so we have proverbs like "Women are the devil's nets."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경찰행정학과특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01.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불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함은 정당하다.
- ③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중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02.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 ② 甲은 A의 은행 예금통장을 강취한 후에 그것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A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을 환급받았다.
- ③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으면 서도 A를 속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해서 금원을 편취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B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④ 甲은 망인 A의 공동상속인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B로부터 '임야를 처분해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고도 그 임야를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임야에 관해서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03.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②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사량 미달의 독약이었던 경우,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불능범이다.
- ③ 설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탕을 먹인 경우, 주관설에 따르면 불능미수이다.
- ④ 독약으로 오인하고 설탕을 먹여 살해하려고 한 경우,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불능미수이다.

04.판례에 의할 때 옳은 설명은?

-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는 될 수 없고,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 ②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의 지속이 임신부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또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③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나,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 중, 남편이 만나는 여자와 그 여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보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여자의 방에 침입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05.다음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 후행자는 선행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의 의사로 특정 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06.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장비인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교도관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갑 등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을 구청에 파견되어 점검 중이던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 경찰관들이 야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곳에 있던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임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동행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자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경찰관 중 한 명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찬 경우
- ㉣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의 처리 과정에서,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갑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0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甲의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③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범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범익침해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④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기 때문

에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형이 감경된다.

08.형벌론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② 자격정지의 기산점은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09.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다음 중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건물의 계단에서 甲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甲은 건물 내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바꾸니에 담고 있던 중,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乙을 수상히 여긴 주점 종업원 丙이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은 甲이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丙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② 甲이 절도행위 중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에게 붙잡혀서 보안사무실에서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甲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甲이 빌라 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소유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도난정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과 丙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乙의 얼굴을 쳐서 폭행하고, 발로 丙의 정강이를 건어 차 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에 대해서는 준강도죄가, 丙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는 논외로 함).

1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
- ②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죄가 성립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중중의 신입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입 대표자 선임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가처분결정시부터 취소시 사이에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 ④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와 같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12.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을 의미하므로, 이종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차량을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그 차량을 이용한 강도제외를 수락하고 그 본범의 부탁으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예정장소까지 운행하였다면 강도예비죄 외에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터이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④ 본범이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인 리프트 탑승권을 뜯어온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13.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피해물건의 위탁자 모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하더라도, 포주가 보관하던 화대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판례에 의할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 ㉡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뚝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 ㉣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 ㉤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온 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다음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설명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17.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그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하지 못한다.
-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8.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결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 ③ 술을 마시고 찻집방에 들어온 甲이 찻집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發汗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찻집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몰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 하더라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

19.다음 중 아래와 같은 행위 가운데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추려낸 것은?(판례에 의함)

- ㉠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
- ㉡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주인 어디 갔느냐” 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영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영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 라고 말한 경우
- ㉢ 피고인이 앞서가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탑승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니는 경우

- ① ㉠, ㉡, ㉢ ② ㉠, ㉡
③ ㉠, ㉢ ④ ㉡, ㉢

20.뇌물죄의 몰수와 추징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자기앞 수표를 수취한 후 소비하고 자기앞 수표 상당액을 반환 경우, 수취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②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그 후 수취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을 수취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③ 수취자가 돈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주었더라도 수취자에게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④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경찰행정학과특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진술거부권 보장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관하여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제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의 발부한 법원은 법원의 제척사유의 하나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하여 법원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이다.
- ③ 상고심판결을 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전심재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④ 증거보전을 행한 법원은 법원의 제척사유의 하나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체포시 미란다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행하여야 하며, 제압 후에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하였다더라도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체포적부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까지 옮겼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송달효력이 없다.
- ② 판례에 의하면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한 경우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무효이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은 명문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단순추완에 해당한다.
- ④ 변호인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변호인선임신고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에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비록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고 경찰관이 단속실적을 올리기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었으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B가 C에게, C는 D에게 순차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D를 체포한 경우에는 B, C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D를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한다.
- ②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없다.
- ③ 甲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乙죄로 구속되어 乙죄만으로 기소되었지만 甲피의사건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乙죄의 수사에 이용되었다면 그 구금일수를 乙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범행직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감치와 과태료의 제재는 조건부 석방을 취소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조건부 석방의 취소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
- ㉢ 검사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으나 구속취소는 청구할 수 있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요한다.
- ㉤ 보석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며, 다만 검사만이 보석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결정이 있으면 구속영장의 발부로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판례에 의하면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 ㉡ 사기죄에 있어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 ㉢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 ㉣ “피고인이 1987년 3월경 A파에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A파를 구성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8년 9월경 A파에 가입하였다”고 동조 제3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단하는 경우
- ㉥ 주거침입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단하는 경우(법정형은 동일하나 주거침입강간미수는 미수감경할 수 있음)
- ㉦ 공갈죄의 범죄사실 중 그 범죄시각을 ‘03:30경’에서 ‘02:30경’으로 변경한 경우
- ㉧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요한다.
-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발부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압수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다음 판례 중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 ㉡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의 공소사실
- ㉢ 관세포탈의 범죄사실과 관세포탈물품운반의 범죄사실
- ㉣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판례에 의하면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작성권한 없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만든 압수목록
-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 경찰의 검증조서 중 가분 가능한 내용의 일부분
- ㉣ 사법경찰관 아닌 사람이 사무취급으로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 서류의 사본
-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 경우
- ㉦ 미군수사관 작성의 진술조서
-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는 사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② 선서무능력자를 선서시키고 증언하도록 한 때에는 그 선서나 증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14.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된 이상,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이미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1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④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16.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없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증거가 된다.
- ③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는 압수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그 범죄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남편에 대한 진술로서 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1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이 몰수의 가능성에 관하여 제1심과 견해를 달리하여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 ③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18.항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항고법원은 제1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통지를 받은 항고인은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 ④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9.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甲과 乙이 같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각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 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특무부대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甲을 피의자로 신문한 행위가 구 헌법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1962.1.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3조 위반죄 및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들 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 ㉣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하고,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 ㉦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한 경우 특정된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 ㉡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 ㉢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인 경우에 법원이 면소판결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피고인은 이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상고가 허용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경찰행정학과특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번호 :

이름 :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은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찰상 즉시강제의 권력작용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정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긴 것이란 면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 경찰조직법·경찰작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경찰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 경찰의 임무영역에서 위생경찰, 영업경찰 등이 제외되었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 보안경과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사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 치안행정협의회는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비밀엄수의 의무
 - 성실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경찰공무원 등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청인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보장되거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결정이라도 무효는 아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청심사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 계획 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에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관련이 있다.
-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주벽이 심한 자
 -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이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은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실종아동등 신고는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12. 「유실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실물법에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하여 처벌당한 자는 소유권 취득권리를 상실한다.
- ②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을 준유실물이라고 하며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3. 선거경비 중 개표소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 ② 제2선(울타리 내곽)은 경찰이 단독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 ③ 제3선(울타리 외곽)은 검문조·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함으로써 개표소 내·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14.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지침상 시설을 관장하는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15. 다음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②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③ “고속도로”란 자동차등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④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6.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②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③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동일한 차로와 그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④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야 한다.

17. 정보의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순환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 ②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③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명령하달
- ④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요구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18. 집회신고의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취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보완통고에 따른 주취자의 보완기한은 발송된 때로부터 24시간이다.
-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없다.
- ④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주취자에게 통지한다.

1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상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 중 내란죄(제87조), 일반이적죄(제99조), 전신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일반귀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자신의 자산인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④ 품행이 단정할 것